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중환,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단기선교팀 기도와 훈련 모임을 1 월 7 일(주)부터 시작합니다.
- 송구영신예배 : 오늘 12 월 31 일(주) 밤 11 시  
2018 년 기도제목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2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신 미라 권사 / 시편 29 편

이번 주 친교 : 서 현숙 권사 / 황 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 이 영순 권사 / 임 수연 집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53 호

2017 년 12 월 31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 반주자 : 박양희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2 월 31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494 장(통 188 장) "만세 반석 열리니"	다함께
대표기도 (Invocation)	시편(Psalms) 148 편	성 창현 집사
찬양 (Choir)	"주의 모든일에 감사드리며"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Luke) 7:24-28; 요(John) 3:28-30	인도자
설교 (Sermon)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세례요한" "John the Baptist : The Prophet of Most High"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303 장(통 403 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혼두라스)

### 2017. 12. 17. 주일 설교 요약

징조와 예표,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7:1-14; 8:16-18; 9:6-7)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 앓수르 연합을 결성하고 남유다에 압력을 가하다가 마침내 침공해 옵니다. 많은 도시와 인원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왕자까지도 잃어버린 유다 아하스 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며 유다를 침공한 두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9 장). 이미 정하신 뜻이고 일어날 일인데 굳게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잘 될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믿으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믿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 어려우니 표적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순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봐야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려 하나 연약하기에 표적을 구하는 자에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표적 자체의 유익만 누리려고 달라는 속임수에는 응해주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의 유익에만 취해 하나님을 더이상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잠 30:9). 표적은 도로표지판(사인판)과도 같이 늘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표적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상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이미 큰 나라 앓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하스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든 앓수르에게서 오든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표적을 쥐든 그릇만 받고 하나님을 버릴 불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표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아하스는 “매일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슨 표적이 되겠느냐”고 코웃음쳤겠지만, 우리는 이 표적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약속임을,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약속임을 압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보다, 나라가 장구히 굳게 서는 일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약속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원하는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은 탄 테 가있고 손만 내밀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크고 영원해서, 우리 좁은 소원보다 헤아릴 수 없이 높아서, 눈에 안보입니다. 맘에 안듭니다. 낮을 가리신 것 같고, 약속이 봉해진 것 같습니다(8:16,17). 하나님을 만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표적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8:14)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낮을 가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래서는 안되는데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주신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 믿으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누리라고. 당장 눈 앞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새로와지는 복된 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알면 표적 없어도 매일의 일상이 표적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태어날 것은 700 년도 더 남았지만 이사야는 자기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징조와 예표 삼아 하나님을 찾고 섬기겠다고 합니다. 매일 수도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입니다. 그냥 얻은 것 같은 우리 삶의 혜택들, 관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